침몰 순간 구조 고무보트 1대 뿐…해경 안일한 대응 고스란히

"잡기만 해! 잡기만 해!"…바닷속 학생들 구조 긴박했던 순간 담겨

400명이 넘게 갇혀 있는 여객선 침몰 소식을 듣고 출동한 해양경찰의 구조 장비는 7인승 고무보트와 100t급 경비정, 헬기 2대가 전부였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 주변에서 소극적 구조 활동을 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해경이 사고 초기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전남도 어업지도선 201호 항해사 박승기(44)씨가 공개한 동영상은 적나라한 구조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4분부터 25분까지 201호에 딸린 단정 키를 잡고 승객 구조 활동을 벌이면서 헬멧에 부착된 캠코더 자동촬영기능으로 찍은 21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고 침몰하기 전 선미 쪽과 물에 잠겼던 우현 쪽에서 승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구조를 요청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동영상에는 구조활동에 나선 선박은 전남도 어업지도선 201·207호 단정, 어선 2척과 해경 123정 등 외에 보이지 않았다.

해경 공개 영상과 달리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됐다. 10시 8분 진도군 의신면 갈명도에서 불법어업 단속 중 사고 소식을 듣고 출동한 단정은 세월호에 닿자마자 선미 부분 갑판 위에 눕다시피 줄을 잡고 버티던 남성을 구조했다. 세월호는 이미 왼쪽으로 90도 기운 상황이었다.

바다를 헤엄쳐 구명보트 쪽으로 다가가는 구조대원의 모습도 보였고 세월호에 바짝 붙은 단정에 타기 위해 곡예하듯 안간힘을 쓰며 어업지도원 손을 잡고 올라탄 뒤 안도해하는 승객들의 장면도 나온다.

"잡기만 해! 잡기만 해!"세월호 둘레를 돌며 승객을 찾던 어업지도원들이 펴지지도 않은 구명벌이 즐비하게 늘어선 옆 난간을 잡고 바다 위로 머리만 내놓은 학생들을 향해 "잡기만 해! 잡기만 해!"라고 긴박하게 소리치는 장면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학년 4반 단체 카톡방 39

- 담임:다들갠찬니?? 오전 9시 5분
- ㅇㅇ이도 갠찮아요 오전 9시 5분
- ㅇㅇ이도 갠찮ㅎ아요 오전 9시 5분
- 담임:지금 상황 어때?? 오전 9시 7분
- 아직 다친 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 9시 8분
- 담임:다행이다..아.. 나 혼자잇셔..ㅜ 오전 9시 9분
- 선생님갠찮으세요?? 오전 9시 10분
- 조끼 입으셨나요 오전 9시 10분
- 담임:응!!! 입엇어~ 오전 9시 11분
- 담임:얘들아~움직이지말고 가만히 잇어~조끼 입을수 잇음 오전 9시 13분
- 네 오전 9시 16분
- 애들아 오전 9시 16분
- 살아서보자~ 오전 9시 16분
- 전부사랑합니다 오전 9시 22분
- 여러분사랑합니다 오전 9시 31분
- 살아서만나자ㅋㅋ 오전 9시 36분
- 이따 만나자 오전 9시 56분
- 부디... 오전 9시 56분

단원고 연극부 단체 카톡방 30

- 연극부사랑함.. 오전 9시 3분
- 다들사랑해ㅜㅜㅜㅜ 오전 9시 4분
- 나도 오전 9시 4분
- ..... 오전 9시 4분
- 정말로 오전 9시 5분
- 야 진짜 진지하게
- 진짜 사랑해..
- 우리진짯 ㄱ을거같애 오전 9시 5분
- 아니진짜로 배기울이고 오전 9시 5분
- 얘들아 진짜 오전 9시 5분
- 내가 잘못한거있으면 오전 9시 5분
- 다 용서해줘 오전 9시 5분
- 사랑한다.. 오전 9시 5분

동아일보가 29일 보도한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침몰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에서 단원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

여고생 딸(이쁜이)-엄마

- 오전 10시 1분 고ㅏ찮은거지
- 응응
- 난괜찮어
- 우리는배안에
- 방안에잇어사
- 구명조끼다입고 있어 오전 10시 1분
- 오전 10시 2분 잘 있는거지?
- 응응 오전 10시 2분
- 옆에애들이랑잇어
- 엄마너무걱정하지마요
- 아까10분뒤에 오전 10시 3분
- 오전 10시 4분 친구들과 잘 다처하고있어
- 응응
- 괜찮아
- 걱정하지마요 오전 10시 4분
- 그래
- 오전 10시 4분 많이 놀라서 어쩌니
- 오전 10시 5분 정말 괜찮은거지
- 응응괜찮아
- 난안에잇어서괜찮은데
- 밖에있는애들이ㅠㅠㅠㅠ 오전 10시 4분
- 1 오전 10시 9분 용기 잃지말고 친구들과 잘 있다 나와

참사 13일 넘도록 승무원 수도 파악 못해

합수부, 아르바이트 승무원 3명 추가 확인…승선자 수 또 늘어날 가능성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사고 발생 13일이 넘도록 승선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선자 수가 사고 초기부터 462명(16일)→475명(17일)→476명(18일)으로 오락가락 바뀌는 상황에서 승무원 수마저 29명에서 32명으로 바뀌면서 수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합수부와 대책본부가 사고 당시 총 승선자 수를 놓고 수차례 말을 바꿔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최종 탑승 인원과 실종자 수가 앞으로도 계속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수부는 이날 목포지청 2층 중회의실에서 연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승무원 수가 더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정확한 신원이라든지, 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합수부와 대책본부가 파악한 세월호 승선 승무원 수는 모두 29명. 이중 20명이 구조됐고, 나머지 9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내놓은 승무원 명단엔 방모(20)·송모(20)·오모(19)씨 등 3명의 승무원이 더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선사 고용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세월호에 탔다. 합수부와 대책본부가 발표한 29명보다 3명 더 많은 32명인 셈이다. 방씨는 숨진 불꽃놀이 담당 승무원 김기웅(28)씨와 이종사촌 관계로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방씨는 수개월 전부터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와 오씨는 다행히 구조된 뒤 인천 한 병원에 입원했지만 대책본부는 이들이 승무원으로 세월호에 탑승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합수부는 지난 28일 생존 승무원 20명 전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합수부 명단에서는 이들이 누락된 것이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될 경우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승무원 명단에서 누락된 아르바이트생이 정확히 몇명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승선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합수부는 이날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승선자 명단(수)과 관련, "현재 승선자 수를 확인 중인데, 정확한 승선자 수는 조사가 끝나 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최종 발표한 476명도 정확한 승선자 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합수부와 대책본부는 승선자 수가 또다시 바뀔 경우 수사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출입문 개방에 쓸 유압식 절단기 세월호 침몰사고 14일째인 29일 진도군 병풍도 사고 해역에 정박중인 민간 구조업체 '언딘 리베로'의 바지선 위에서 해군 잠수부들이 출입문 개방에 쓸 유압식 절단기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항해사·기관장 등 4명 추가 검찰 송치

사고 당시 선원-청해진해운 7차례 전화통화 포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29일 세월호에서 승선자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수난구조법 위반)로 강모(42·일등 항해사)씨·신모(34·일등 항해사)씨·김모(47·이등 항해사)씨·박모(54·기관장)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선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자신들만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구속된 선박직 선원 15명 중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합수부는 이날 구속된 선원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으며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합수부는 특히 사고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여부와 선박 탈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벌(구명뗏목) 투하시험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명벌 투하시험 업체 관계자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합수부는 침몰사고 당시 선원·선장·승무원 매니저 등이 인천 청해진해운 본부와 7차례에 걸쳐 전화통화한 사실을 알고 통화내역을 입수, 청해진해운 측이 사고 당시 선장과 선원들에게 승선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한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안전 검사를 담당했던 한국선급 본부장급 임원 1명과 실무직원 등을 소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름방학 무안출발 ↔ 다낭 전세기 (VN항공)총6회
관광 다낭.호이안.후에 준특급 899,000~ / 특 급 1,099,000~
휴양 다낭/호이안 (호핑투어),노팁,노옵션 특 급 1,299,000~ / 초특급 1,499,000~
※불포함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유류할증료(130,000원)/기사, 가이드팁성인40$)

5월 2일~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출발!!
터키 일주 9일 2,590,000~
그리스, 터키 9일 2,890,000~
이스탄불, 스페인, 포르투갈 9일 2,890,000~
이스탄불, 발칸 9일 3,19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420,000/4월기준), 기사&가이드팁(90유로), 싱글차지

아시아나항공으로 떠나는 북경 태항산
ALL포함 북경 태항산 5일 1,050,000

5/3일 단 하루!!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대만여행
대만 3박4일 1,23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 발맛사지($30/30분), 101빌딩 전망대($35)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5/5,5/10,5/12,5/17,5/18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399,000 출발일 5/5,5/10,5/12,5/17,5/18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8명이상 단독행사 가능 (별장 1동씩 드립니다),주말(목,금출발은 요금인상됩니다)
카멜리아 일본 큐슈 구중산 유후다케 등산 3일 149,000~ 출발일 5/5,5/10,5/12,5/17,5/18
항공 일본고급 료칸및 특급호텔숙박!! 큐슈 3박4일 599,000~
항공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불포함 사항 : 국내수송, 유류세, 기사가이드팁

2014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협회장배 친선골프대회!!
일 시 2014년 6월 18일(수) 13:00~ 참가비 325,000원 그린피36홀 + 골프텔 22평 1박(2인1실)
※포함사항 : 항공료, 그린피 36홀, 골프텔22평(1박,2인실), 조식 ※불포함사항 : 카트피, 캐디피, 중식, 석식, 현지교통비
대회개요 장 소 :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경기방식 및 진행 : 신페리오 / 샷건
대 상 : 국내 및 해외 골프동호인 시 상 : 우승, 메달리스트,준우승,장타상,근접상,행운상
인 원 : 160여명(도내 68, 도외 72, 해외 20)

무안-장가계 전세기 3/28~5/30일 [월/금 출발]
실속 장가계/천문산 4일 899,000
품격 장가계/천문산 4일 989,000
실속 장가계/천문산 5일 949,000
품격 장가계/천문산 5일 1,039,000
※불포함사항 : 중국단체비자(₩33,000), 유류세(₩100,000), 기사&가이드팁

무안-계림 힐링투어!! 4/9~6/4, 총 17회 매주 수, 토 출발
끝없이 펼쳐지는 산수 절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계림!!
캐주얼 계림/양삭 4일 599,000~
클래식 계림/양삭 4일 949,000~
캐주얼 계림/양삭 5일 649,000~
클래식 계림/양삭 5일 999,000~
※불포함사항 :유류할증료(₩949,000/4월기준), 기사&가이드팁, 중국단체비자(₩35,000)

국내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유류할증료(₩24,2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ㅁ포함 장급(합숙기준)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